

여성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 여가 및 문화, 정보통신비 지원의 조절효과

이윤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vels and the Sustainability of Education of Adolescent Female Single-parent: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Culture and Info-communication Cost

Yoon-J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상황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자나 임신해 있으면서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을 가진 자,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248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명 중 1명이 수혜자로, 청소년 한부모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 중단 경향을 여가, 문화, 정보통신비 지원이 조절하여 학업지속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 문화, 정보통신비 지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을 위해 여가와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청소년 한부모, 사회적 지원, 여가, 문화, 정보통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social support for single parents in leisure, culture, and info-communication areas has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impact of stress situations on academic continuity in single parents. To this end, technical statistics and logistic analysis were conducted on 248 single parents who were pregnant or pregnant at the age of 18 or older and raised their children after childbirth. As a result, one out of every four beneficiaries were involve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cademic continuation by adjusting the stress-induced tendency of single parents to stop studying due to leisure, cultur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These results show that leisure, cultur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pport are effectively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academic sustainability of single parents who want to stop studying due to stress relief and str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eisure, culture, and social suppor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s for the academic continuation of single parents of teenagers.

Key Words : Adolescence Single-parent, Social support, Leisure, Culture, Info-communica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Hoseo University in 2020(20200416).

*Corresponding Author : Yoon-Jung Lee(yoon2525@hoseo.edu)

Received June 25, 2021

Revised August 16,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10여 년 이상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의 주요인으로 언급되며 시급히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며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한편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임신과 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 제도권 내에 ‘혼인율’에 포함되지 못하나 ‘부모되기’로 결심해 자녀를 키우기로 한 어린 미혼모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가족 유형이 공존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실제 한국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해외와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그 수가 50% 이상이나[1], 한국은 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2].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통계치를 살펴보다라도 그 수는 2만 4,405명 정도로 한부모 수치와 비교해 1%에 불과하다[3, 4]. 청소년(15-19세) 1천 명 당 출생아 수 역시 5.0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7명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미혼모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약 8.4%에 속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다[5]. 그러나, 간과하기 어려운 점은 청소년기에 속한 미혼모의 출산이 10여 년의 기간을 두고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에 있다. 즉, 입양이나 낙태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청소년 한부모의 수가 지속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소년 한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우리 사회에 상당수 공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 없는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항에 청소년 한부모(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3,731가구에 59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6].

지원대상이 되기 전까지 청소년 한부모들은 흔히 10대 미혼모라 불리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취약위기계층으로 간주되었으나 지원대상이 된 후에는 학업중단과 빈곤, 열악한 양육 환경에 주목하며 결핍과 배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체계의 수혜계층으로 논의되고 있다[7, 8].

실제 이들은 50% 이상이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 중 56%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업지속을 희망한다[2].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원가족의 지지는 그들의 불안 수준을 낮추고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학업지속 의지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9, 10].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은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흔하며, 관계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라 고립과 빈곤 상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11].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이후의 생애주기를 거치며 빈곤이 만성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어린 연령에 속해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역할 외에 생애초기의 발달과업 수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개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OECD국가와 비교해 국내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26.7%)은 4배 이상이다. 그 중 청소년 한부모들은 근로소득 의존도가 더 낮은 편이어서 생계와 주거 면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2, 12]. 즉, 취약계층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심리적 불안이나 어려움을 느낄 때, 10명 중 1명 이상이 주변의 지원이 전혀 없다(13%)고 응답해[7]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위기의 대상이다.

최근 COVID-19 상황에서 강조된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 비대면 접촉은 정보통신 환경과 관련 기기의 보유가 중요한 생활 여건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실제로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2020년도의 관련 기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 시간 등 비대면 공간에서의 환경과 이용행태는 수요 급증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41]. 이처럼 청소년 한부모들도 임신과 출산으로 대면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에 위축과 제약이 생기면 손쉽게 소통과 정보습득을 SNS 등을 통해 시도한다[32]. 따라서 이에 접근 가능한 환경은 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생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모바일과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된 시대에 태어나 온라인상에서의 대화와 교류가 익숙한 세대로, 가상 공간에서의 정보 나눔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지 요소로 알려져 있다[13, 14].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발달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책은 이들이 ‘부모되기’로 결심한 시점에서부터 지원되므로, 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 수행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 양육자가 청소년기에 있음을 고려해 균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은 시급

성에서 밀려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다.

실무자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들이 인간관계의 협소화로 인해 사회기술을 습득하기 어렵다 말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한다면 극복과 개선은 가능하다 설명한다[15].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열악한 환경이 가져오는 스트레스 상황, 즉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자신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업지속 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발달과업 수행의 필요 요소로 거론되는 여가와 문화,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에 기본 요소로 간주되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개입의 효과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여가,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상황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 문화, 정보통신 영역의 사회적 지원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2. 선행연구 고찰

2.1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 동향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Table 1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 현금지원과 시설지원, 서비스 지원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한국은 2010년 4월부터 법령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내 수혜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복지급여 체계에 따라 아동양육과 학업지속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근거로 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16].

Table 1. Social Support for Adolescence Single-parent

Target Area	Classification	Form
Basic Living Security	Livelihood and Housing Benefit	Cash
	Healthcare Pay	
	Educational benefits	
	Childbirth benefits	
	Support for self-reliance	
	Support for leisure and cultural life	
Single-parent Family	Child support expenses	Cas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chool supplies fee	
	Facilities Home Living Subsidy	
	Mobile communication fee reduction	Facility
	Living facilities	
	Facilities used	
Adolescence Single-parent	Mentor Mentee Services	Service
	Qualification Exam Learning Fee	Cash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 expenses	
	Self-reliance Promotion Allowance	
	Telephone and Internet Counseling Services	Service
	Mobile Community Counseling	

* The box of dark lines relates to the key variables in this study. Sources : [5-6, 16-18]

즉,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리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제외한 만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과 세금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며,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과 교육의 추가 지원에 청소년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허용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이다[18]. 그 외 여가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을 근거로 4대 공과 종료, 조선왕릉 무료입장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6].

한편,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시설은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연계되거나 입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시설은 모부자가족복지시설과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단기보호 형태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서의 복지상담소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 131개소가 존재한다[17]. 대개 청소년 한부모들은 기본생활지원형에 속하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서 출산하고, 공동생활지원형에 속하는 시설로 옮겨 자녀를 양육하는데 일부는 기본생활지원형에 속하는 모자가족복지시설로 이동하기도 한다[19].

최근의 미혼모를 위한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5], 양육과 교육지원, 시설 관련 지원 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고립 예방을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 초기부터 상담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상담전화(1388)나 24시간 가족상담전화 서비스(1644-6621) 지원 강화, 전화나 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 확대, 한부모 및 미혼모 지원단체를 통한 일대일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상담과 자조모임 활성화 등이 그에 해당된다.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소통방식과 정보습득 방식을 고려해 서비스 개입을 효율화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의 미디어 혹은 정보통신 매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감면과 통화료 50% 지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감면과 통화료 35%가 지원되고 있다[16].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기에 속한 한부모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당 연령대의 한부모들이 수요층일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즉, 정부는 2010년부터 청소년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지원법령 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아직은 사회적으로 간과하기 어려운 ‘관심 대상’으로서 지원의 방향성을 두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2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요인들

2.2.1 연령과 학력, 취업상태, 스트레스 상황

먼저 연령과 학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로의 복귀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는 해외나 국내에서도 같은 동향으로 보고된다. 실제로 10대 미혼모들은 출산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학교 등록률이 낮아지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경향은 뚜렷해지고, 검정고시 준비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교 재학 시 자퇴 혹은 퇴학을 한 경우에는 초등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학력수준을 지닌 이들과 비교해 부적응 가능성이 더 높게 예측되어[20-23] 학교 복귀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취업은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 요인으로, 학업 중단은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완전한 취업

은 경제적 빈곤으로까지 연결되어 다시 진학을 어렵게 만든다[24]. 같은 맥락에서 취업 상황이 안정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면 학업 의지는 달라져 상급 학교로 진학을 희망한다[25, 26].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대다수 고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학업 의지와 욕구로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을 위한 기술이나 전문자격(67%), 그리고 학력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졸업장(55%)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24],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기의 한부모들은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학업보다는 취업 선택을 고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연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게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학업지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8].

2.2.2 여가, 문화, 정보통신 영역의 사회적 지원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이탈을 방지하며 문제 해결과 사회적 관계를 돕기 위한 지원은 ‘여가’를 핵심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27, 28]. 이윤영(2019)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여가활동과 이탈 행동을 연구하였는데[29], 여가활동을 통해 비행경험을 지닌 친구와 선택적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탈의 경험과 학습이 조절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중재, 적절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입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최장원(2019)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30] 여가문화활동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순차적 경로로 검증하였고, 강덕제와 이강현(2017)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관이 유도되고 자기결정력이 향상되며 부모와 학업, 동료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31].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수행과 동시에 어린 부모로서 자녀 양육이라는 발달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들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태어나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티가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의 모임이나 육아 정보의 나눔은 다른 육아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행동으로 사회적 지지 환경일 수 있다

[13, 14]. 실제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는 없지만,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는 예측 가능하다. 미혼모들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그들이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을 받다가 종료 시점이 되어 지원이 중단되면 생활고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 상황이 누적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공감하는 대상을 통해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거나 서비스 수혜를 받기도 하면서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시 온라인상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자신의 취업 혹은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43]. 이 연구는 엄밀히 청소년기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의 경험을 회고하며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이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완화된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정책과 서비스 개입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일 것인지 검증의 필요성을 논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미정과 그의 동료들(2018)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10대 89.7%, 20-24세 87.3%)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이트(10대 59%, 20-24세 65.7%), 그리고 한부모 상담 전화(10대 35.9%, 20-24세 29.9%) 등의 핫라인 접촉 경험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를 얻으며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2]. 즉, 청소년기에 속한 한부모들은 정보통신의 활용과 그 효과가 높은 연령대여서 임신과 출산, 양육, 주거에 관한 내용 외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 일상에서의 어려움들을 컴퓨터, 스마트폰, SNS를 활용해 해결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인터넷 접속 등의 정보통신 관련 지원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33]. 자녀 양육으로 인한 활동 제약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온라인상에서의 SNS,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더불어 육아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34, 35]. 어떠한 차원에서는 부모로서 익명으로 사회적 교류에 나서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보다 주체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도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가 그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었는데, 그 지원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학업지속 의지가 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도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학업지속 의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42]. 그러나 연구 대상이 대학원생들이었으므로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그대로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학업관련 의지나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지원이 스트레스 수준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음이 예측된다는 점에 있다.

종합해보면,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스트레스 상황에 놓은 청소년 한부모들은 여가나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 사회적 지원이 있을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업지속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의 일부이다. 이 자료는 2012년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면접형식으로 수집된 비공개 자료로, 연구자는 기관 측 관련자와 연락해 연구계획과 연구목적을 밝히고 그에 부합한 일부 자료만을 입수하였다. 당시 원자료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수립 활용에 목적을 두고 한시적으로 수집된 내용이라 이후 추가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실태 파악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여가,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원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되는 연령대 수가 적어 원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검증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수집 시기의 제약은 있으나, 연구 모형 검증에 적절한 조건을 갖춘 가장 최근의 것이라 판단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조사 시점과 연구 시점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 해석에 유의하고자 했으며 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가보다는 지원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하였다.

원자료는 수집 당시 시설이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한 후, 전문조사기관과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

해 표본을 확보하는 형태로 수집되었다. 따라서 자료의 53.7%는 미혼모자시설과 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과 미혼모부자기관 등을 통해 수집되었고, 그 외에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재가 청소년들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대상들의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기권이 약 34%, 경기와 인천이 약 23%, 대전이 약 10%이고, 그 외 지역이 30% 정도이다[2].

자료수집 당시 주체 기관은 대상을 광의적으로 접근해 24세 이하에 속하는 임신 중에 있는 자, 자녀 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자, 과거 임신 혹은 낙태, 입양 등의 경험을 가진 자, 자녀 양육 중인 자 모두를 포함해 조사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13-24세 연령을 기준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한 대상을 재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조사 당시 임신 중이며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려는 자,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자만을 포함했고 종속변인인 학업지속 관련 상황을 고려해 고졸 이하의 학력수준에 해당하는 자들만 추출하였다. 임신 중인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려는 예비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 부모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과업에 속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부모기의 경험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출산'을 고려해야 하고 '양육'이라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예측하며 그 과정에 대해 갈등하거나 부모기 발달과업 수행에 따르는 현실적 제약 상황들이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임신 전 학업을 중단한 사례들도 있고,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양육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해 고민과 결정을 반복하며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7, 8, 11, 4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청소년 한부모들의 '부모되기'로 결정한 경험과 준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분석대상의 범위를 허용적으로 정하였다.

이 기준으로 최종 248명의 자료가 선별되었고, 원자료 내 성별이 100% 여성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역시 모두 여성이다. 그러나, 연구에서 언급되는 '청소년 한부모'라는 명칭은 한부모가족지원법령 내 정의를 따라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남녀 한부모'[36]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3.2 주요 변인 및 측정도구

3.2.1 인구사회적 특성 및 통제변인

분석 대상의 현황 파악을 위해 연령과 학력, 원가정 유형, 부모와의 동거여부, 취업여부, 자녀 취학여부를 파악하였다.

연령 변인은 조사 시점을 토대로 생년월일에 따라 산술하여 연속형 변수로 생성하였고, 19세를 기준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해 이분형 변인을 만들었으며, 미성년을 기준변인으로 채택해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학력은 학업지속자들의 현 교육수준과 학업 중단자들의 최종 학력을 병합해 생성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인 집단을 구분하고, 중졸 이하와 고교재학 이상의 이분형 변수를 생성해 고교재학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채택해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원가정 유형은 양친가정, 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가정(친인척 포함), 대안가정(그룹홈, 보호시설 등), 기타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질문으로 양친가정, 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의 5가지 유형으로 재구분해 활용하였고, '현재 귀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질문을 토대로 부모와의 동거여부 변인을 생성해 규모를 살펴보았다. 취업여부는 '현재 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비율을 산출하고, 비취업자를 기준으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자녀의 취학여부는 해당하는 질문으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를 취학 상태로 보아 규모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3.2.2 독립변인 : 스트레스 수준

분석 대상의 스트레스 수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질문(지난 한 달간 다음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을 활용했는데, 기타를 제외한 10개의 하위 영역(집안일, 직장일, 경제적 어려움, 아이 돌보기,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이웃/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거의 없다'는 1점, '매우 많다'는 4점으로 하여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영향요인으로 검증되거나 예견되는[37-39] 원가족과의 관계, 아이 돌보기(육아), 집안 일,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5개 문항만을 추출해 분석하였다.

원자료에서는 자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살펴보았는데, 그 수치는 0.694였다.

3.2.3. 종속변인 : 학업지속 여부

학업에는 학교를 다니는 것, 원격교육을 받는 것, 검정고시 준비, 독학 모두를 포함해 조사 당시의 지속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3.2.4. 조절변인 : 여가와 문화, 정보통신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여가와 문화, 정보통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근거로 [40, 6] ‘저소득 가구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지원 정책과 ‘공공요금(전화요금/전기요금/통신비) 감면’ 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추출하였다. ‘받았다’와 ‘받지 않았다’로 구분된 이분형 응답을 통해 수혜율을 파악하고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3 분석방법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분석이다. 먼저 스트레스 수준은 신뢰도 검증을 기반으로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업, 취업 등의 변수와 함께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정책 지원 수혜율은 학업 중단자와 지속자로 구분해 비율을 제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했는데, 상호작용항 생성 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인을 모두 평균 중심화(Meaning Centering)하여 투입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하위 영역별 수준으로 투입하고, 스트레스 수준의 높낮음에 따른 정책 지원 효과를 특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조절변인의 작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의

내용과 같다.

대상의 평균 연령은 20.6세로 미성년자의 비율이 33.5%였으며, 25.8%가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업중단자와 학업지속자의 비율은 73.4%, 26.6%였고, 비취업자와 취업자의 비율은 80.6%, 19.4%이다. 원가정 유형을 살펴보면, 양친가정은 54.4%, 한부모 가정은 27.0%, 조손가정은 6.5%, 계부모가정은 5.6%였는데,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유형을 합산하면 비율이 33.5%에 달한다. 부모와 동거여부는 비동거 84.3%, 동거 15.7%였으며, 99.5%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수준에서 원가족 스트레스는 2.13점, 육아 스트레스는 2.50점, 집안 일 스트레스는 2.52점, 경제적 스트레스는 3.13점,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는 평균 3.38점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48)

Variable	N/M	%/SD
Age (years)	Below 19y	83 / 33.5
	Above 20y	165 / 66.5
	Total	20.64 / 2.35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64 / 25.8
	Above high school	184 / 74.2
Academic situation	Stop	182 / 73.4
	Continuation	66 / 26.6
Employment status	Unemployment	200 / 80.6
	Employment	48 / 19.4
Cohabitation with parents	No	209 / 84.3
	Yes	39 / 15.7
School children	No	217 / 99.5
	Yes	1 / 0.5
Original family type	Two parents	135 / 54.4
	Step family	14 / 5.6
	Single parent	67 / 27.0
	By grandparents	16 / 6.5
	Others	16 / 6.5
Stress Level	Original family	2.13 / 0.96
	Childrearing	2.50 / 0.92
	Housework	2.52 / 0.90
	Economy	3.13 / 0.86
	Future	3.38 / 0.79

4.2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정보통신비 수혜 현황

분석 대상의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정보통신비 관련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3의 내용과 같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로 명명한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사업의 수혜율은 23.8%로, 학업중단자 중에는 23.1%, 학업지속자 중에는 25.8%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및 전화/통신비 관련 공공요금 감면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비 지원 사업의 수혜율은 25.4%로, 학업중단자 중에는 26.4%, 학업지속자 중에는 22.7%가 지원받고 있었다.

Table 3. Rate of Beneficiary (N=248)

Category	Total (N=248)		Academic Situation			
			Stop (N=182)		Continuation (N=66)	
	N	%	N	%	N	%
Leisure and Culture Voucher	59	23.8	42	23.1	17	25.8
Reduction in communication costs	63	25.4	48	26.4	15	22.7

4.3 스트레스와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 미치는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정보통신비 지원의 효과

독립변인인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정보통신비 지원의 영향력을 검증한

내용은 Table 4의 내용과 같다.

Table 4에서의 Model 1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들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 변인과 조절변인과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해 투입한 Model 2에서는 일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Model 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낸 지원은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지원과 (B=-1.734, OR=0.177, p<.05) 정보통신비 지원이었으며 (B=1.788, OR=5.976, p<.05), 또한 정보통신비 지원은 원가족 스트레스 상황과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서(B=2.376, OR=10.765, p<.01),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과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서(B=-2.305, OR=0.100, p<.05)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Model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항목들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1은 육아 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지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수혜 집단의 기

Table 4.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vel and Academic Continuation (N=248)

Variable		Model 1			Model 2		
		B	OR	95% CI	B	OR	95% CI
Control variable	Age(0=below 19y)	-2.663	.070 ***	.028-.173	-3.409	.033 ***	.009-.117
	Education(0=above high school)	-2.844	.058 ***	.018-.193	-3.729	.024 ***	.005-.112
	Employment status(0=unemployed)	-1.862	.155 *	.033-.724	-2.271	.103 *	.018-.609
Independent variable	Stress-original family	-.236	.790	.523-1.193	-.644	.525 *	.293-.940
	Stress-childrearing	.082	1.086	.680-1.733	.043	1.044	.565-1.932
	Stress-housework	-.328	.721	.445-1.168	-.786	.456 *	.242-.857
	Stress-economy	-.187	.829	.471-1.460	.007	1.007	.466-2.177
	Stress-future	.058	1.060	.608-1.850	.212	1.236	.589-2.594
Moderator variable	Leisure and Culture Voucher(A)	-.254	.776	.275-2.192	.009	1.009	.302-3.371
	Reduction in communication costs(B)	.270	1.309	.449-3.820	-.071	.932	.241-3.606
Interaction term	Stress-original family * (A)				.002	1.002	.333-3.017
	Stress-childrearing * (A)				-1.734	.177 *	.036-.867
	Stress-housework * (A)				1.150	3.157	.666-14.979
	Stress-economy * (A)				.263	1.301	.269-6.293
	Stress-future * (A)				.630	1.878	.330-10.684
	Stress-original family * (B)				2.376	10.765 **	2.371-48.876
	Stress-childrearing * (B)				1.788	5.976 *	1.183-30.189
	Stress-housework * (B)				.722	2.058	.440-9.622
	Stress-economy * (B)				-2.305	.100 *	.012-.812
Stress-future * (B)				-.957	.384	.063-2.352	
Constant term		1.211	3.356 **	-	1.693	5.438 **	-
-2 Likelihood value		176.177			150.316		
χ^2		76.323***			102.184***		
Nagelkerke R ²		.427			.54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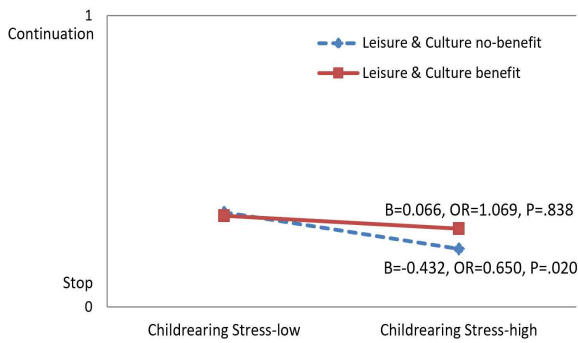


Fig. 1. Childrearing Stress*Leisure & Culture Vou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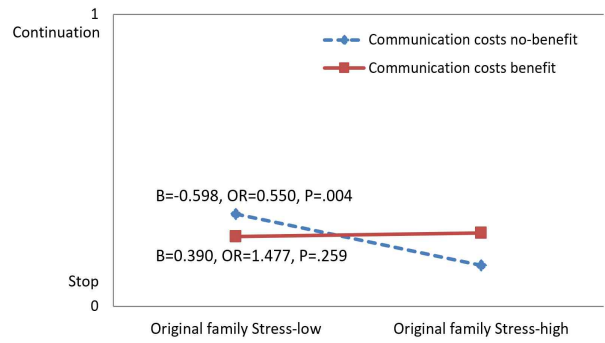


Fig. 2. Original family Stress*Communication C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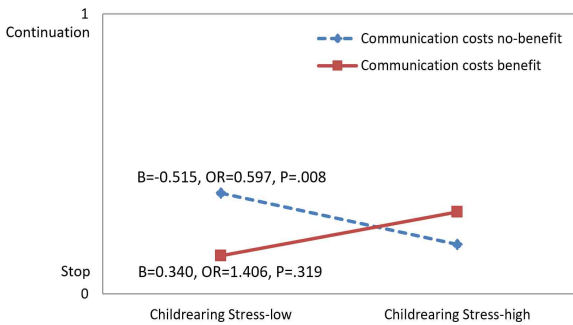


Fig. 3. Childrearing Stress*Communication C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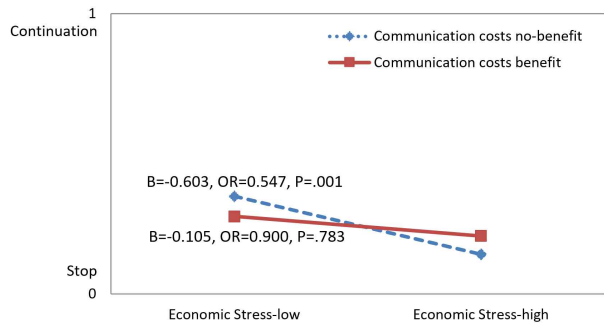


Fig. 4. Economic Stress*Communication Costs

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해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지원이 육아 스트레스에 따른 학업 중단에 대한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Fig. 2는 원가족 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정보통신비 지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원가족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비수혜 집단에 비해 수혜 집단의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학업의 중단 가능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Fig. 3은 육아 스트레스의 높낮음에 따른 정보통신비 지원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비수혜 집단의 경우 육아 스트레스가 높으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나, 수혜 집단의 경우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도 오히려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보통신비 지원의 조절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Fig. 4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높낮음에 따른 정보통신비 지원의 조절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보통신비 수혜 집단의 기울기가 비수혜 집단의 기울기보다 완만해 정보통신비 지원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학업 중단에 대한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상황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 및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

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 중에서도 여가문화 및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지원 효과를 살펴본 이유는 청소년기에 속한 한부모의 생애주기 발달 과정과 성장에 초점을 두어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기 위함이다. 이에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 성년여부와 학력수준, 취업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 수준으로 구분해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여,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수혜여부와 정보통신비 수혜여부와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몇가지 결과를 요약하며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는 33.5%가 미성년자로 26% 가까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고, 73.4%가 학업중단자였으며, 비취업자는 80.6%에 달했다. 이들의 원가족 유형은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인 경우가 33.5%로 부모와 동거하는 이들은 15.7%였다. 그리고 대부분(99.5%)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한국의 한부모가구 비율이 7.3%인 점을 고려할 때[3] 조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에 속하는 원가족 유형 비율이 3배 이상이므로 가구유형의 대물림이 우려되며, 학력수준이 낮고 비취업인 상태로 어린 자녀와 함께 부모

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3.38점으로, 경제(3.13점), 집안일(2.52점), 육아(2.50점), 원가족(2.13점)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대상자의 여가 및 문화 바우처와 정보통신비 수혜는 4명 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가문화와 정보통신 분야 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원방식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청소년기의 학업수행과 진로탐색에 '여가'와 '문화'라는 요소가 매개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스트레스와는 부적 관련성이 검증되고 있어[30, 31], 사회적 소통과 정보력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서비스 개입이 되도록 지원 내용을 알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완화되고 부모로서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며 자신의 진로탐색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가 및 문화 영역의 서비스 개입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고, 정보통신비 지원은 온라인 교육과 연계되도록 구조화하고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되어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44] 수혜 범위를 확장하여 여가 및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정 시간을 허용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비 지원도 현재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교생 교육비 영역을 확장하여 비대면 수업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등 온라인 학습 영역까지 넓힌다면 학업지속 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여가 및 문화 바우처와 정보통신비 수혜의 조절효과는 스트레스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가 및 문화 바우처 지원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는 경향을 완화하고 있었고, 정보통신비 지원은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6배 가까이 높이고 있었다. 또한 원가족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는 경향은 정보통신비 지원으로 완화되고 있었는데, 특히 원가족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는 경향은 정보통신비 지원을 통해 변화되어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10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자신의 학업 혹은 진로를 탐색할 여유를 갖게 하는 데에는 여가 및 문화 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이며, 육아와 원가족 스트레스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정보통신 영역의 지원이 학업을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검증되었

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미디어 혹은 정보통신 매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재의 지원은[5] 임신과 출산 과정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 연령 제한 등의 까다로운 항목들을 허용하여 서비스 수혜가 용이하도록 해 개입을 확대하고, 학업과 진로, 자립에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 영역과 수준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은 학력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취업과 더불어 자녀의 부모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선행 요소이다.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수준은 정규직 취업과 관련되며, 중졸 이하보다 고교 재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지닐 경우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45]. 본 연구에서는 여가,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환경임을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주요 결과들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아직 누군가의 돌봄이 요구되는 생애 발달특성에 기반한 사회적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천적,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여가 및 문화,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육아, 원가족,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결핍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천 현장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개별 사정(assessment)을 통해 스트레스 영역과 수준을 알아내고 그에 기반해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가 개입되도록 계획할 수 있다. 둘째, 여가 문화 요소와 온라인 환경 요소가 청소년 한부모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도구가 되며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부모되기'로 결심한 어린 한부모들의 건강한 삶에 가용 자원의 선택과 효용을 논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모두 여성이며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양육 계획이 있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료의 수집 시기와 연구 시점과의 차이로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 평가보다는 지원의 방향성에 초점을 둔 논의가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연령과 학력, 취업상태 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인 모두를 통제하기 어려웠으므로 인과관계 규명에 제약이 따른다.

REFERENCES

- [1] OECD Family Database. (2016a). *Chart SF2.3.C. Adolescent fertility rates.* http://www.oecd.org/els/soc/SF_2_3_Age_mothers_childbirth.pdf
- [2]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2).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Single-Parent Families of Adolescents I: General Report.*
-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a). *Percentage of single-parent households.*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 [4]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b). *Children of single mother and father by 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2&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4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 [5] Joint Press Release from Relevant Ministries. (2020.11.6.). *We will strengthen support for single mothers' pregnancy, childbirth, and single parents' child support*— 「Single-parent Family Support Measures」 —.
- [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2020 Guidance o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roject.* <http://www.mogef.go.kr>
- [7] J. Y. Kim. (2014). Living status and support for independent of youth single parent family. *2014 NYPI Report, 51.*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8] Y. J. Lee. (2017). *The Influence of Adolescent Female Single-parent's Stress on the Sustainability of Education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Single-parent Family Policy Support.*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9] M. S. Standage, J. L. Duda & N. Ntoumanis. (2005).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411-433.
- [10] M. S. Kim. (2014). The relation between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4),* 145-166.
- [11] H. J. Baek & J. Y. Kim. (2013). Postpartum circumstance and parenting attitude and behavior among adolescent mother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4(4),* 87-117.
- [12] OECD Family Database. (2016b). *Poverty rate in households with a single adult and at least one child.* http://www.oecd.org/els/soc/CO_2_2_Child_Poverty.pdf
- [13] S. Y. Bae & M. S. Yeu. (2016). The Effect of the Features of Online Community on Leisure Involvement and Online Community 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8(2),* 5-25.
- [14] B. L. Valtchanov, D. C. Parry, T. D. Glover & C. M. Mulcahy. (2016). 'A whole new world', Mothers' technologically mediated leisure. *Leisure Sciences, 38(1),* 50-67.
- [15] Y. J. Kim. (2020). Policy Measures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Rights.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12(1),* 69-109.
- [1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The Korea Lottery Commission. (2020). *2020 Guidelines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Grandparents' Family Welfare Services.*
- [1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9), *List of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http://www.mogef.go.kr/as/asl/as_sl_s001.do
- [1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parent on Child rearing and Self-reliance.*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
- [19]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Research 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youth single parent family I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support systems for single-parent families headed by adolescents.*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0] Chuang. (1997). High School Youths' Dropout and Re-Enrollment Behavior. *Economic of Education Review, 16(2),* 171-186.
- [21] L. M. Rich & S. B. Kim. (1999). Patterns of later life education among teen mothers. *Gender and Society, 13(6),* 798-817.
- [22] S. Mollborn & E. Morningstar. (2009).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enage Childbear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Using Longitudinal Evid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3),* 310-326.
- [23] S. Y. Kim & K. E. Chung. (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ffecting post-dropout paths among school drop-out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3),* 179-205.
- [24] S. M. Hwang & H. S. Shin. (2007). Testing the mediation model of career preparatory behavior,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in school dropouts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1),* 229-245.
- [25] J. K. Lee & S. G. Lee. (2007). An analysis of career expectation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employed adolesc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3),* 121-137.
- [26] M. Radey & K. Brewster. (2013). Predictors of stability and change in private safety nets of unmarried moth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9(3),* 397-415.
- [27] A. M. Cho. (2005). The Role of Leisure Boredom in the

-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ree Time Motivation and Problem Behaviors(Violent Behaviors and Drug Use) Among You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85-101.
- [28] T. R. Miller, D. A. Fisher & M. A. Cohen. (2001). Costs of juvenile violence: Policy implications. *Pediatrics*, 107(1), 1-7.
- [29] Y. Y. Lee. (2019).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delinquent friend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us deviance violence by hierarchical regression.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3(1), 77-90.
- [30] J. W. Choi. (2019). The Influence of IADL to Life Satisfaction and the Double-mediating Effects of Self-Rated Health, Leisure Activities in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9), 582-592.
- [31] D. J. Kang & K. H. Lee. (2017).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Self-Image, Self-Determination, and Stress in Adolescence -Termination Study Utilizing Korean Adolescence Panel Study-. *Journal of Kyonggi Tourism Research*, 27, 35-51.
- [32] S. J. Byoun, Y. K. Kim, I. S. Choi, J. Y. Kim, S. J. Choi & H. J. Kim. (2019).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Unwed Mothers'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3] B. C. Lee, C. H. Lee & Y. J. Kim. (2015). A Study on Information Exchange Characteristics, Usefulness and Adherence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Online Community as a Cyber Leisure Spac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4(2), 55-64.
- [34] C. Madge & H. O'connor. (2006). Parenting gone wired, empowerment of new mothers on the internet?. *Social & Cultural Geography*, 7(2), 199-220.
- [35] D. C. Parry, T. D. Glover & C. M. Mulcahy. (2013). From "stroller-stalker" to "momancer", Courting friends through a social networking site for moth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5(1), 23-46.
- [36]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21).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21&lsiSeq=222505#0000>
- [37] T. Lindhorst & M. Oxford. (2008). The long-term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adolescent mothers' depressive symptoms. *Social Science & Medicine*, 66, 1322-1333.
- [38] K. Lieberman, H. N. Le & D. F. Perry. (2014). A systematic review of perinatal depression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Adolescence*, 37, 1227-1235.
- [39] M. A. Easterbrooks, C. Kotake, M. Raskin & E. Bumgarner. (2016). Pattern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 Mothers: Resilience Related to Father Support and Home Visiting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6(1), 61-68.
- [4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2020 Guidelines for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Projects*. <http://www.mw.go.kr>
- [4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1. 3. 3). *Press release "Internet, evolving into a nationwide platform of living in the covid-19 era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2020 Internet Use Survey'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79980>
- [42] D. Y. Lee & Y. I. Kim. (2019).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LMS Utilization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Academic Persistence among Online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2(3), 144-151.
- [43] R. H. Kang, J. R. Park & S. I. Hwang. (2019). A Study on Life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Living in Community. *Journal of Life-span Studies*, 9(3), 95-113.
- [44] Y. J. Lee. (2017). Influence of Adolescent Female Single-parent's Stress on the Sustainability of Education: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Single-parent Family Policy Support for child rear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4), 363-384.
- [45] Y. J. Lee. (2019). A Study on the Work and Life Conditions of Single, Young Parents : The Effec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Public nanny service Support on Full-time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23(3), 89-107.

이 윤 정(Yoon-Jung Lee)

[경력]



복지 정책 및 실천

· E-Mail : yoon2525@hoseo.edu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문학 박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다문화복지, 가족